

##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 12. 자연스런 표현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인도자의 말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은 문장의 흐름이 순탄한 동시에 거슬리는 어구(語句)가 없어 이해하기에 순조로운 것을 뜻한다. 인도자가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거나 현학적인 느낌을 풍기려고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경공부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움을 느끼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여 **자연스러움이란 가식이 없음이다.** 그러므로 인도자의 말은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을 지녀야 한다. 억지로 꾸며 돋보이려할 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인도자는 참석자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므로 참석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결과 말의 자연스러움을 잃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자의 말은 생활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반드시 현실과 관계있는 언어가 자연성을 더해 준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소퍼(Soper)는 『현재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는 많은 언어들이 언어학적인 실험을 거친 결과 부정확하고 불분명하여 무의미한 언어들이 판명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현대의 언어자료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될 관심이 요구된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기준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인도자들에게 소설이나 고전작품, 잡지, 신문, 희곡, 사전 등을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인도자는 여러 가지 언어표현 등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도자 자신이 표현력을 기르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과 언어적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성경공부의 열매와 기쁨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자연스런 표현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말을 제거하는 일이다. 성경공부 현장에서 문장표현이 너무 장황함으로 자연스러움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형용사와 관사, 그리고 『오늘』, 『오늘 아침』, 또는 습관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의 공허하고 무의미한 표현들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잃게 된다. 이런 습관적이고 인위적인 표현은 진솔함이 없고 참석자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말이나 문장은 간결한 문장의 특징인 자연스러움을 깨뜨린다. 한국교회의 성경공부 현장에서 진부한 강단 용어들과 공허한 표현들로부터 해방된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생명력있는 성경공부가 될 것이

다. 지면을 통하여 필자는 인도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배울 점을 메모하여 계속적으로 연습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것은 값싼 모방이 아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은 남의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